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677천 Km ²	G D P	525억 달러 (2012년)
인구	62.7백만 명 (2012년)	1 인 당 GDP	825달러 (2012년)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Kyat(Kt)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815 (2012년)

-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인구의 89%가 불교, 그 외에 기독교 4%, 이슬람 4%이며, 민족구성은 버마인 68%, 카렌인 7%, 카친인 4% 등으로 다양한 종교와 민족 구성에 따라 민족·종교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국명을 버마연방으로, 2010년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 1962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집권한 이후 2011년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가 탄생함.
- 미얀마는 한반도의 3배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물자원(구리·니켈), 삼림자원,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UN, IMF, ADB, ASEAN, WTO에 가입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3.6	5.1	5.3	5.5	6.3
재정수지 / GDP	-1.8	-4.4	-4.5	-4.8	-3.8
소비자물가상승률	22.5	8.2	8.2	4.0	6.1

자료: IMF, EIU.

□ 인프라 투자 확대와 천연가스 수출 증가로 2013년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3.6%까지 하락하였으나, 국제 천연가스 및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여 2011년 5.5%를 기록하였음.
- 천연가스 수출 증가와 외국인투자 확대로 2012년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제재 완화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과 전력, 석유,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적자 비중 축소

- 국방비 및 수도 네피도(Naypyidaw) 정비 사업 등으로 정부지출은 증가한 반면,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취약한 제조업기반과 지하경제의 발달로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0년 총선 시행으로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5%로 다소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됨.

- 2012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폭이 감소세로 전환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2012년 3.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세는 2013년에도 지속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5%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요 증가 및 신용확대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전환 전망

- 2009년 이후 국제원유가격 안정에 따라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22.5%에서 큰 폭 둔화된 8.2%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4.0%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정부의 석유 가격과 전기료 인상과 국내 신용 확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6.1%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와 신용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성과

가. 구조적 취약성

□ 낮은 농업생산성 및 취약한 제조업 기반

- 농업은 미얀마의 중심산업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매우 높으나 생산성은 저조한 편임.
 - 정부의 농가 대출 확대와 토지 임대기간 확대 등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및 비료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정책의 모호성과 잦은 변경, 엄격한 규제 등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핵심적인 산업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성장이 미흡한 편임.

□ 경제자유도지수 172위, 부패지수 172위 기록

-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서 발표하는 2013년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미얀마는 179개 평가국가 중 172위, 아태지역의 41개 국가중 40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재산권, 부정부패, 비즈니스, 노동, 투자, 금융 부문에서 순위가 저조하며 정부규모, 정부지출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 * 경제자유도지수: 기업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2년 미얀마의 부패지수는 176개 국가 중 172위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됨. 미얀마에서 수직적 서열화된 구조의 영향으로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열악한 사회 인프라

- 과거 군부의 오랜 집권 기간 동안 인프라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력, 도로, 항만, 통신 등의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여 산업 기반이 미약함.
- 한편, 중국, 인도, 태국과 ADB,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는 미얀마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적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도 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인도는 미얀마 중부지역의 수력발전소 개발을 위해 미얀마에 약 5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세계은행은 도로·학교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85백만 달러 지원함.

나. 성장 잠재력

□ 삼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미얀마는 중국, 인도에 이은 아시아 제3위의 삼림 보유국으로 토질이 양호한 미경작지가 많아 농산물 생산 증대 가능성이 큼.
- 또한, 철광석,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이 풍부하고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천연가스는 2011년 기준 283억 입방미터(아시아 9위)가 매장되어 있으며 미얀마의 최대 외화수입원임.

□ 양질의 저임노동력 풍부

- 2012년 기준 미얀마의 인구는 6,270만 명이며 이중 15~64세 인구가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얀마 양곤의 임금수준은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평균 월 미화 68달러로, 중국(광저우) 352달러, 베트남(호치민) 130달러, 라오스(비엔티엔) 118달러, 캄보디아(프놈펜) 82달러보다 저렴한 편임.

□ 거대 소비시장과 인접한 입지조건

- 미얀마는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소비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고 동, 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 정책성과

□ 신정부의 경제분야 개혁 지속

- 미얀마 신정부는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발표('12년 6월)를 포함한 경제분야의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회경제개발계획을 통해 GDP에서 산업부문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제조업 기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예정임. 또한, 기초교육,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 기술개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 2011년에 최초의 경제자유화 법령인 특별경제구역(SEZ)법을 제정 및 공포하여 투자여건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 특별경제구역은 수출 자유화 지역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수출·수입 관련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전망이어서 동 법안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신외국인투자법안 발효

- 신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2012년 11월 신외국인투자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확대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혁개방과 대외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신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세금감면과 외국인투자자 앞 인센티브 제공(토지사용 최장 70년간 허용, 이익 송금 보장) 등을 포함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100% 단독투자과 합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게 됨.
- 동 법의 발효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 의류 및 천연가스 수출증가로 상품수출 증가세 지속

- 중국, 인도, 태국 등 인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광물자원, 천연가스, 농산품, 목재 등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철회 및 완화, 원유와 천연가스 등 기존 주요 수출품목 이외에 섬유 부문에서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상품수출은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기록

- 상품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따라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상품수지 흑자는 208억 달러에 그쳤음.
-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와 소득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2011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상품수입,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증가로 당분간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 상 수 지	1,247	986	1,574	-1,424	N.A.
경 상 수 지 / GDP	6.2	3.2	4.2	-2.9	N.A.
상 품 수 지	2,940	2,588	3,477	208	N.A.
수 출	5,905	5,903	7,335	7,699	N.A.
수 입	2,965	3,315	3,857	7,491	N.A.
외 환 보 유 액	3,718	5,252	5,717	6,353	6,239
총 외 채 잔 액	8,103	9,970	11,240	11,841	15,258
총외채잔액/GDP	25.8	28.3	24.8	22.8	22.8
D. S. R.	4.1	8.3	8.4	3.8	5.1

자료: IMF, EIU.

□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수력발전, 석유 및 천연 가스 부문에 투자가 증가하여 대 미얀마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2년에 전년보다 90%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실적(억 달러): 10('10)→10('11)→19('12)
- 투자법 개정, 대 미얀마 제재 철폐 및 완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향후 제조업, 교통,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대 미얀마 투자국에는 중국(34.3%), 태국(23.5%), 홍콩(15.5%), 한국(7.2%) 등이 있음. (2012년 3월말 기준)

□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따라 2012년 외환보유액 감소

-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이 국가 재정 증가에 기여하여 1988년 쿠데타 당시 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2011년 말 기준 64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함. 한편, 2012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전년 보다 소폭 감소한 62억 달러를 시현함.

□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 미얀마는 공식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식환율, 정부공인환율, 시장환율 등을 혼용하는 다중환율구조를 운영해왔으나, 2013년 3월부터 전격적으로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함.
 - 미얀마 중앙은행은 은행간 시장환율, 환율 변동폭 범위 등을 감안하여 매일 기준환율을 결정하여 고시함.
- 통화발행을 통한 정부 재정적자 보완,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향후 미얀마 차트(Kyat)화 환율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원리금 연체 이자 증가 등으로 외채상환부담 누적

- 총외채잔액은 원리금 연체 이자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 15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GDP대비 총외채잔액은 2012년 기준 22.8%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9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10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11년 민간 정부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이 큰 편

- 1962년 쿠데타로 군부가 장기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2010년 11월 상 하원 양원제 의회를 구성할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군부가 조직한 연방단결발전당(USDP)이 총 1,154석 가운데 883석(76.5%)을 차지하며 압승함.
- 2011년 1월 정기국회가 개최되고 2월 간접선거를 통해 떼인 세인(Thein Sein) 전 총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되면서 행정부가 구성됨. 3월 30일 떼인 세인(Thein Sein)이 군사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고 4월 1 일부로 민간 정부가 출범함.
- 한편, 군부의 정치적 지분이 헌법으로 25% 보장되어 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의 대부분이 전직 장성출신으로 여전히 미얀마의 정치는 군부의 통제 하에 있는 형식상의 민간정부임.

□ 정치적 자유화 조치 등 광범위한 정치개혁 실시

- 2011년 4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자유화 조치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아웅산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언론 통제 완화, 정치범 일부 석방,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법률 제정, 노조와 파업을 허용하는 노동법 제정 등을 통해 정치 부문 개혁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4월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국민 연맹(NLD) 의원들이 전체 45석 중 43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이룸.
- 군부 후원 세력이 의회의 80%를 장악함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정부의 개혁, 야당인 민주국

민연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 확대, 공정하게 치러진 보궐선거 등을 바탕으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

2. 사회동향

□ 소수민족과의 갈등문제가 사회적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얀마 정부는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민족(산족, 카렌족, 카친족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으며 특히, 카렌족은 카렌민족해방군(KNLA)를 결성해 군사정권에 맞서며 수만명이 학살당하거나 태국 등으로 망명함.
- 2012년 5월에도 카친주(州)에서 카친독립기구(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KIO) 소속군과 정부군 간에 교전이 발생하는 등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남.
- 떼인 세인 대통령은 소수민족 갈등 관련 협상 기관을 재정비하여 소수민족과의 평화 협상을 통해 사회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분간 소수민족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불교와 이슬람간의 유혈분쟁 발생

- 잠재되어 있던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갈등이 최근 유혈충돌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종교분쟁은 소수민족 갈등과 함께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2012년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이슬람교도들인 로힝야족들이 불교도의 공격을 받아 180여명이 숨지고, 11만여명이 피난하는 등 이슬람교도와 불교도 간에 처음으로 유혈충돌이 발생함.
- 2013년 3월 미얀마 중부 미얀마의 중부인 만달레이주에서 방화와 폭동으로 32명이 사망하는 등 종교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인권문제 개선 시 금년 중 미국 경제제재조치 해제 가능

- 미얀마의 군사정권 수립으로 미국은 1988년 원조자금 중지, 2003년 수입 금지와 금융서비스 제공금지 등의 경제제재를 시작함. 그러나, 2011년 4월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보궐선거 실시, 정치범 석방, 아웅산 수치여사 연금 해제 등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동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함.
 - 주요 경제제재 해제는 투자, 금융, 원조, 무역 분야에서 이루어짐.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미국기업이 허가 및 신고 없이 미얀마에 신규투자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무장단체와 관련된 투자를 제외한 금융거래를 허용함. 미국은 그동안 국제원조기구 지원을 반대하는 규정을 유예하여 국제기구의 미얀마 원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석류를 제외한 미얀마산 상품의 수입을 허가토록 함.
- 미국은 중국견제를 위해 미얀마와의 관계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정치범 전면 석방 등의 인권문제 개선, 소수민족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2013년 중 경제제재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4월, EU의 경제제재조치 전면 해제

- 정치범 석방, 표현의 자유 확대, 소수 민족 그룹과의 평화 도모 등 미얀마 정부의 노력에 따라 2012년 4월 EU는 동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1년간 유예한데 이어, 2013년 4월 무기금수 조치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하는데 합의함.
- EU는 미얀마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협의하고 있어, 무관세 적용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얀마 섬유수출이 급증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해제 조치에 따라 유럽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증가하여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신정부에 대한 중국, 아세안의 지지

-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중국, 인도 및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주변국들은 경제적, 안보적 혜택을 이유로 미얀마에 대해 강력한 압력이나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서방국가의 제재가 수십년 지속되는 동안 미얀마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함. 떼인 세인 대통령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세안(ASEAN) 역시 미얀마의 민주화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2014년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을 예정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잔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채상환 실적은 부진

-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25.3%에서 2012년 2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중장기 외채 중 절반 이상이 연체되는 등 외채상환 실적이 부진한 편임.
- 2013년 파리클럽은 미얀마 채무재조정 회의에서 ‘12년 말 기준 103억 2,700만 달러 규모(총 외채규모의 68%)의 파리클럽 앞 채무에 대해 순차적으로 50%를 탕감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서 채무재조정을 통한 외채감면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파리클럽의 채무는 일본 6,541백만 달러, 독일 1,618백만 달러, 프랑스 1,118백만 달러, 노르웨이 534백만 달러 등임. 최대 채권국인 일본은 연체금(6,360백만 달러)의 60%를 탕감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노르웨이는 채무잔액에 대해 탕감하기로 함.

- 한편, 민주화 이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ODA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외채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 : 7등급(2010. 4) → 7등급(2011. 3) → 7등급(2012. 3)
-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 민간 및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가능
-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Hermes :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5년 5월 16일(북한과는 1975년 5월 16일 수교, 1983년 단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7년), 뉴스교환협정(1972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2002년), 사증면제협정(2011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미얀마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미얀마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479	667	1,331	레일 및 철구조물, 건설광산기계
수 입	160	299	351	의류, 농산가공품, 임산부산물
합 계	639	966	1,692	

자료: 한국무역협회.

- 미얀마와의 교역규모는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0년 6.4억 달러, 2011년 9.7억 달러, 2012년 16.8억 달러를 기록함. 2012년 우리나라의 대미얀마 수출은 전년보다 2배 확대되어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74% 증가함.

- 주요 수출제품은 레일 및 철구조물, 건설광산기계이며, 주요 수입제품은 의류와 농산가공품임.
-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해외직접투자실적은 2012년 12월말 현재 신규법인 수 82건, 13억 8,641만 달러(투자누계 기준) 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임.
- 미국 등 서방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저임노동력 활용을 위한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현지투자 등으로 최근 4년간(2009~2012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동기간 중 투자 금액은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의 93%를 차지함.

VI. 종합 의견

- 2012년에는 천연가스 수출과 외국인투자확대로 6.3%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3년에도 전력, 석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외국인투자 지속 등으로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기반 약화로 세수기반이 취약하며 인프라 부문의 정부지출이 꾸준히 확대되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 한편,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로 2013년 재정수지 적자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 수출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1년 외국인 투자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11월에 군부주도의 총선이 실시된 후 2011년 4월에 형식상 민간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정치범 석방, 보궐선거 실시 등의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외국인투자법안 발효를 통한 대외개방을 도모하고 있음. 신정부 출범이후 EU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했으며, 미얀마 정부가 정치범을 전면 석방하고 소수민족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경우 금년중 미국의 경제제재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정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사회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동국은 중장기 외채 중 절반 이상이 연체되는 등 외채상환 실적이 부진하나, 파리클럽 앞 채무에 대해 순차적 탕감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따라 외채상환의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

조사역 서 은 주 (☎02-3779-5705)
E-mail: seoeunchu@koreaexim.go.kr